



이 학 영 | 이학박사/ 고려대 수생태해설사 교수  
우리협회 건설본부위원장  
(koreafish@hotmail.com)

# 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

## 돌마자: 정작 돌맞아야 할 인간들 등살에 힘든 돌마자

학 명 : *Microphysogobio yaluensis*  
 지역 방언 : 돌불이, 돌빠가, 썩쟁이, 해방고기, 댕이, 미라.  
 배통쟁이 등  
 분 류 : 잉어목 모래무지아과  
 자생 수역 : 전국의 소, 대하천.  
 주 서식장소 : 여울부, 모래와 잔자갈이 깔리고 물이 맑은 곳  
 번 식 기 : 5~7월  
 크 기 : 10 센티 내외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모양을 한 물고기가 많이도 자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모래무지아과에 속해 있는 어종들은 전문가도 쉽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모양이 닮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물고기는 일단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모래무지의 그늘에 가려 거의 모두 모래무지로 불리는 실정이다. 하기가 모래무지는 이들 무리 중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하고 전국적으로 잘 잡히며 예전부터 식용으로 널리 애용되었기에 비슷하게 생긴 다른 녀석들은 그저 싸잡아서 모래무지로 취급해버렸던 것이다. 버들매치, 왜매치, 모래주사, 경모치, 배가사리, 여울마자, 그리고 이번호에 주인공으로 뒤편게 등장하는 돌마자가 바로 모래무지 형님의 위세에 숨죽이고 살아온 어종들이다.

다 자란 성어도 몸길이 5~10센티에 불과한 소형어종인 돌마자는 2급수 이상의 맑은 물이 흐르고 하천 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많이 깔려 있는 곳에 주로 서식하고 있다. 물이 더러운 3급수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연구수조에서 관찰해보면 돌마자는 이름과는 달리 형편없이 약한 종임을 알 수 있다.

돌마자는 우리나라 거의 전국적 수역에 골고루 분포하며 모래무지와 매우 닮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새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잡히면 맛이 좋다는 모래무지에 휩쓸려 같은 신세가 되고 만다. 역시 2급수 이상의 수질이 되어야 살 수 있는 모래무지와 사는 곳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지만 모래무지보다는 수심이 얇고 양지바른 여울에 때를 지어 산다. 또 한 모래무지는 모래톱이 잘 발달된 곳에서만 주로 서식하지만 돌마자는 모래톱뿐만 아니라 입자가 굵은 자갈, 큰 돌 틈에서도 잘 적응하여 살고 물 흐름이 빠른 곳에서도 서식하고 있다.

몸은 원통형으로 길쭉하고 옆으로 납작한 유선형으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한 신체구조를 가졌다. 머리의 아래 부분과 배가 납작하여 물 밑 바닥에 잘 붙을 수 있어 맑은 날 맑은 물 가장자리에는 녀석들이 소풍을 나와 다다다닥 붙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입은 반터원형의 말

굽 모양이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짧아서 밑에서 보면 아주 재미난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주둥이에 돌아난 피질돌기가 마치 귀족가문의 문양처럼 생겼다. 이 문양을 보고 비슷하게 생긴 어종을 구분한다.

식성은 잡식성이지만 주로 바위와 자갈에 낀 이끼를 갉아 먹고 산다. 돌마자가 우점종인 곳은 대부분 수질이 좋은 곳

으로 생태계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돌마자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물고기 즉, 한국특산어종이다. 물 좋은 곳에 놀러와 투방이나 족대로 돌마자를 수백 마리씩 잡아 매운탕을 끓이는 인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들은 분명 머리에 돌 맞아야 할 자연파괴자들이다. ☹️



〈그림 1〉 돌마자 한국특산종으로 2급수 이상 맑은 하천에 산다.



〈그림 2〉 돌마자 한쌍 돌마자 한 쌍이 모래톱에서 주위를 살펴보고 있다.



〈그림 3〉 돌마자의 복면 입주둥이 문양과 배의 비늘 형태에 따라 유사종을 구분한다.



〈그림 4〉 서식처 돌마자의 서식처인 경북 김천의 낙동강 상류 수계.